

주요 내용

1.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

교회 비봉사자 10명 중 6명, '교회 봉사 하고 싶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직장인 회식 문화 인식
- 2) 가상자산 투자 인식



교회 비봉사자 10명 중 6명, ‘교회 봉사 하고 싶다’!

한 기독교 포털 뉴스 기사에서 교회 봉사 주제를 다루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교회 안에는 3종류의 사람, 즉 교회 봉사의 기쁨을 느끼며 교회 생활을 하는 ‘일꾼’,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봉사는 전혀 안 하는 ‘구경꾼’, 주일에 너무 많은 봉사를 해서 평일 못지않게 교회 일에 시달리는 ‘탈진자’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일꾼’이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구경꾼’은 일꾼으로 도전하고, ‘탈진자’들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왜 봉사를 하고(혹은 하지 않고), 어떤 봉사를 하며, 봉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이번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 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출석 교인의 44%가 봉사 활동 중이었는데, 비봉사자의 59%가 ‘기회가 된다면 봉사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이 고무적이었다. 매주 교회 출석하는 비봉사자 교인의 경우 무려 68%가 교회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넘버즈 199호>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회 봉사 실태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교인들의 봉사로 인한 번아웃 현황과 교회 밖 사회봉사 활동 영역까지 두루 짚어보았다. 교회 봉사자에 대한 목회자의 이해와 관심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NUMBERS EXCLUSIVE는 한국 교회 목회자와 한국 사회리더십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사회 분야에 대해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넘버즈를 통해 최초로 공개하는 스페셜리포트입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
조사 방법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표본 규모	총 1,000명(유효 표본)
표본 추출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표본 오차	± 3.1% (95% 신뢰구간)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6월 2일 ~ 6월 8일(7일간)
연구 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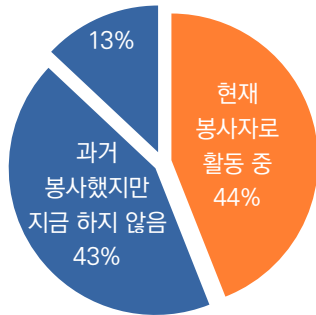
[교회 봉사 실태]

한국교회 성도 44%, 현재 교회 봉사 활동 중!

- ▶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대상으로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10명 중 4명 이상 (44%)은 '봉사자로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 번도 교회 봉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13%였다.
- ▶ 교회 봉사자의 연령대를 전체 성도 연령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50대 이후 장·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교회 봉사 비율이 높았다.

[그림] 교회 봉사 여부 (교회 출석자 전체)

교회 봉사 경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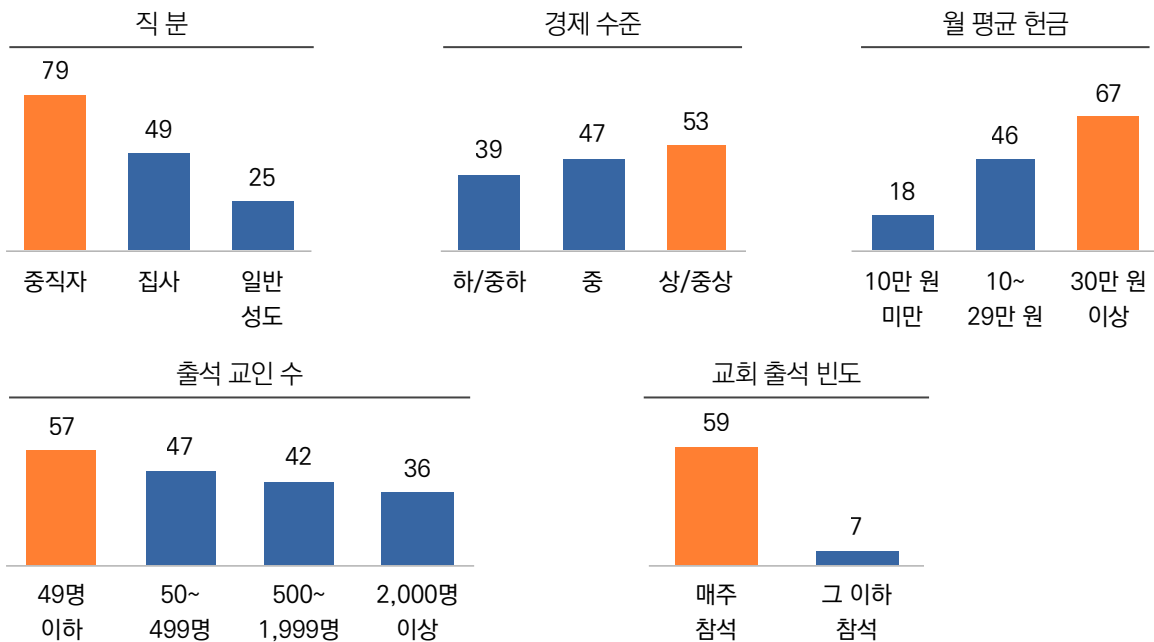
[표] 교회 봉사자 연령별 분포

연령	전체 성도	현 교회 봉사자
19~29세	12%	10%
30대	15%	14%
40대	21%	17%
50대	21%	24%
60세 이상	31%	34%
계	100%	100%

◎ 교회 봉사자가 많으면 헌금 늘고 현장 예배자도 많아진다!

- ▶ 교회 봉사 활동자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직분이 높을수록, 헌금액이 많을수록 봉사 활동 참여 비율이 높았고,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봉사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력이 높은 교인일수록 교회 봉사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 ▶ 특히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봉사 활동 비율은 59%로, 그 이하 출석하는 교인의 봉사활동 비율인 7%보다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교회 봉사자가 많을수록 현장 예배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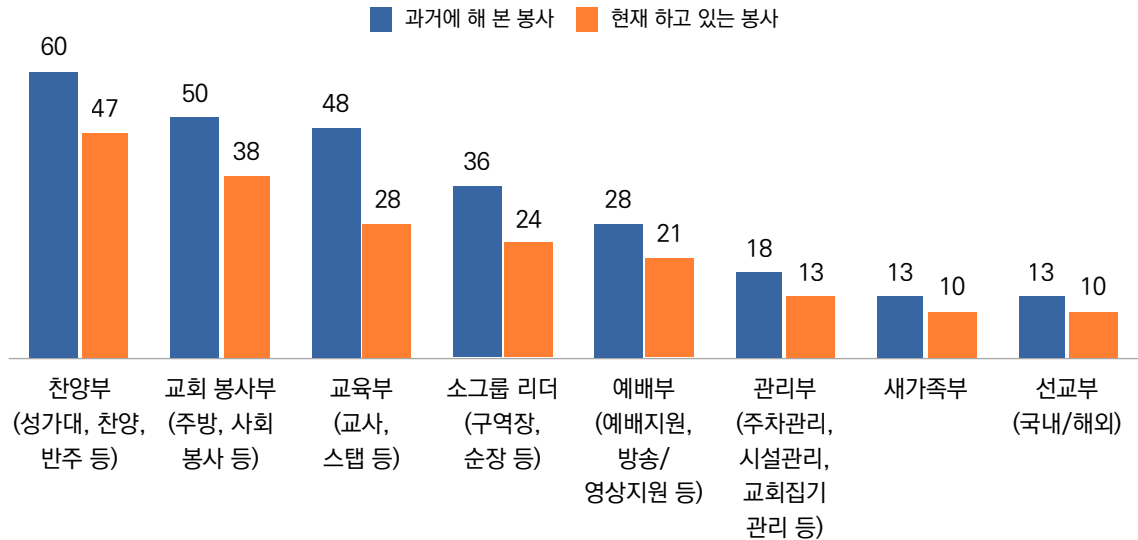
[그림] 응답자 특성별 교회 봉사 활동자 비율 (%)



◎ 교회 봉사 활동, 찬양부가 가장 많아!

- ▶ 교회 봉사자들에게 ‘현재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와 ‘과거에 해 본 봉사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각 물었다. 그 결과, 현재/과거 교회 봉사활동을 모두 통틀어 ‘찬양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교회 봉사부’, ‘교육부’, ‘소그룹 리더’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교회 봉사 중 ‘찬양부’로 섬기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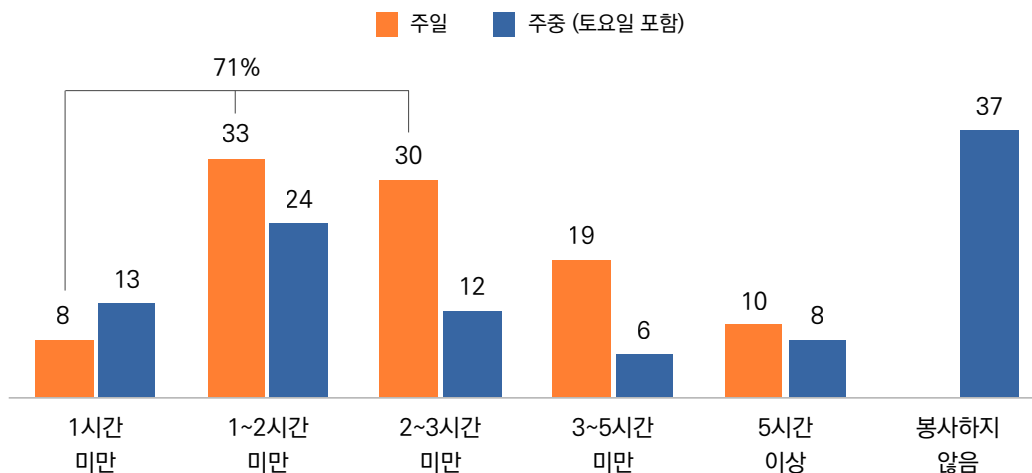
[그림] 교회 봉사 종류 (교회 봉사자, 중복 응답, %)



◎ 교회 봉사자 63%는 주중에도 교회 봉사 하고 있어!

- ▶ 교회 봉사자들은 봉사를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할까? 주일 기준으로 ‘1~2시간 미만’이 3명 중 1명 꼴로 가장 높았고, 전체 봉사자의 71%가 ‘3시간 미만’ 교회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시간 이상’ 봉사하는 경우는 10%를 차지했다.
- ▶ 전체 봉사자 중 63%는 주중에도 교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주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24%로 가장 많았다.

[그림] 교회 봉사 소요 시간 (교회 봉사자, 최근 1개월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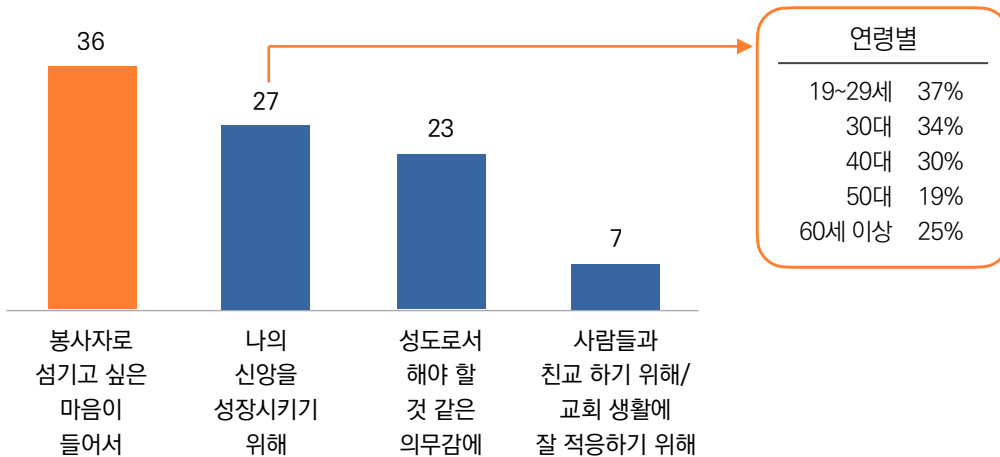
02

[교회 봉사 의식]

교회 봉사 이유, '섬김'과 '신앙 성장' 위해

- ▶ 교회 봉사 이유에 관해 묻은 결과, '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가 36%로 1위로 꼽혔고, 이어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27%, '성도로서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 23%로 응답했다. '봉사에 대한 순수한 동기'와 '개인의 신앙 성장'을 이유로 교회 봉사자로 섬기는 비율이 3명 중 2명이나 되었다.
-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응답률이 높았는데, 19~29세의 경우 신앙 성장 도모를 위한 방법으로 교회 봉사를 선택하는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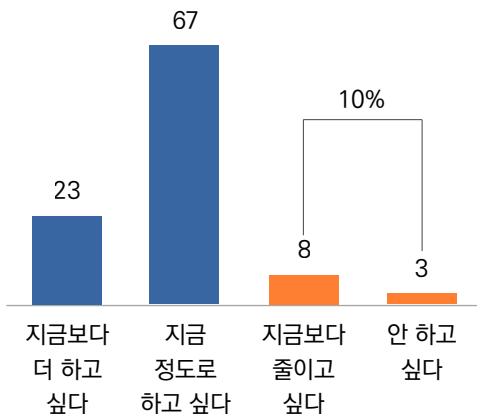
[그림] 교회 봉사 이유 (교회 봉사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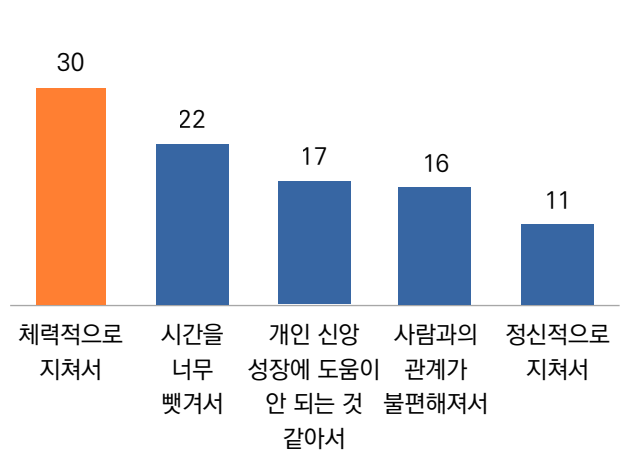
◎ 교회 봉사자, '더 하고 싶다'가 '덜 하고 싶다'보다 2배 많아!

- ▶ 교회 봉사자들에게 향후 교회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3명 중 2명 정도(67%)는 '지금 정도로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지금보다 더 하고 싶다' 23%, '지금보다 줄이고 싶다' 또는 '안 하고 싶다' 10%로 현 봉사자 중 봉사를 더 하고 싶은 봉사자가 줄이고 싶은 봉사자보다 많았다.
- ▶ 교회 봉사를 줄이거나 안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체력적'인 요인(30%)이 가장 컸고, 그 외에 '시간을 너무 뺏겨서'(22%), '신앙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17%) 등의 의견 순이었다. 교회 봉사자들이 '체력 관리'와 '적절한 시간 배분'으로 지치지 않도록 교회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림] 향후 교회 봉사 계획* (교회 봉사자, %)



[그림] 교회 봉사 줄이거나 안 하고 싶은 이유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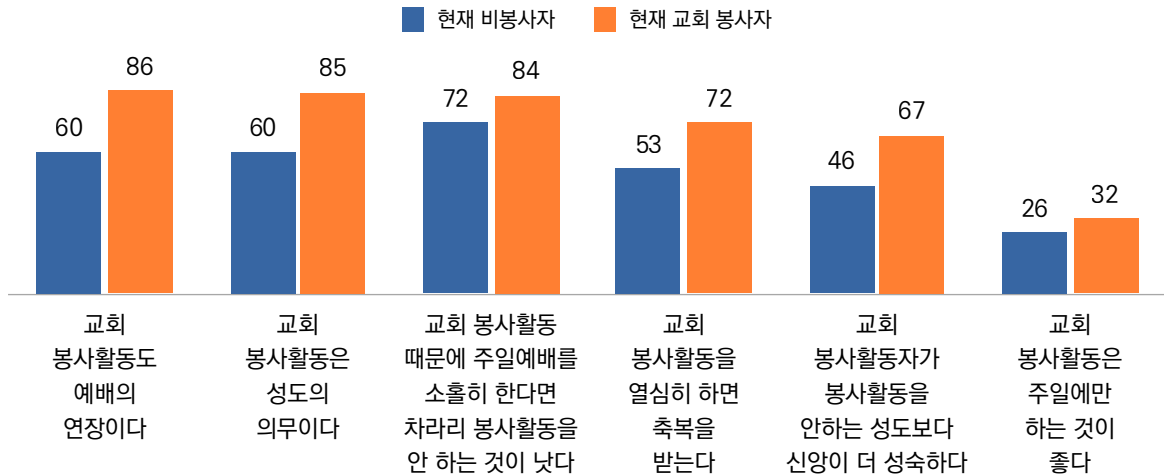


*합이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교회 봉사자, '봉사는 예배의 연장이다' 86%

- ▶ 교회 봉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동의율을 물었다. 그 결과, '현재 교회 봉사자'의 경우 대부분은 '교회 봉사활동도 예배의 연장이며(86%), 성도의 의무(85%)'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교회 비봉사자의 경우 교회 봉사 활동이 성도의 의무이고 예배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60%가량 돼, 봉사는 하지 않지만 봉사에 대한 수용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 봉사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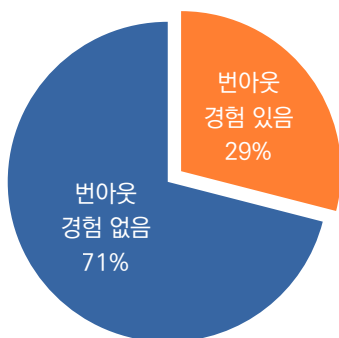
*4점 척도임

03

[교회 봉사와 번아웃] 봉사자 10명 중 3명, 교회 봉사로 인한 번아웃!

- ▶ 최근 1년간 교회 봉사로 인한 번아웃(지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 경험 여부를 묻은 결과, '번아웃 경험 없음' 71%, '번아웃 경험 있음' 29%로 교회 봉사자 10명 중 3명 정도가 교회 봉사로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 번아웃 경험자 비율은 20대 청년층과 40~50대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출석 교인 수가 '50~99명'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교회 봉사로 인한 번아웃 경험 (최근 1년간, 교회 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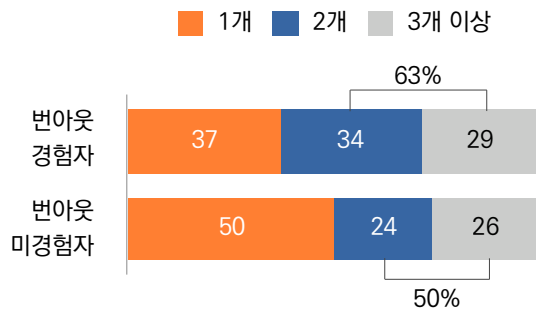
[표] 번아웃 경험 응답자 특성

연령	19~29세	36%
	30대	30%
	40대	35%
	50대	33%
	60세 이상	19%
출석교회 교인수	49명 이하	16%
	50~99명	43%
	100~499명	28%
	500~1999명	35%
	2000명 이상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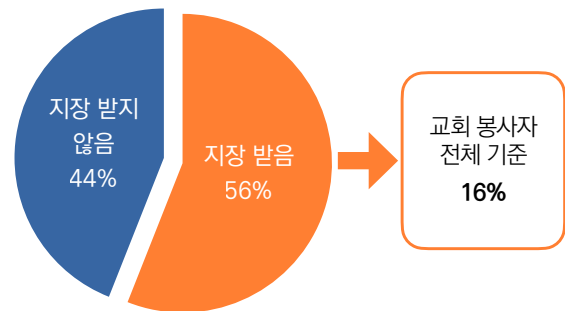
◎ 교회 봉사 번아웃이 직장 and 일상에 지장 초래, 전체 봉사자 중 16%!

- ▶ 교회 봉사로 인한 번아웃과 봉사 활동 개수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봉사 활동을 2개 이상 하고 있는 비율은 번아웃 미경험자가 50%인 반면, 번아웃 경험자들은 3명 중 2명 꼴인 63%에 달했다.
- ▶ 교회 봉사로 인한 번아웃이 직장 and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였는지를 물었더니 번아웃 경험자의 절반 이상 (56%)이 '지장 받음'으로 응답해 번아웃 경험자의 경우 일상 and 직장까지 번아웃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번아웃으로 직장이나 일상에 지장을 받는 교인은 전체 봉사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 봉사 활동 개수와 번아웃 경험 여부
(교회 봉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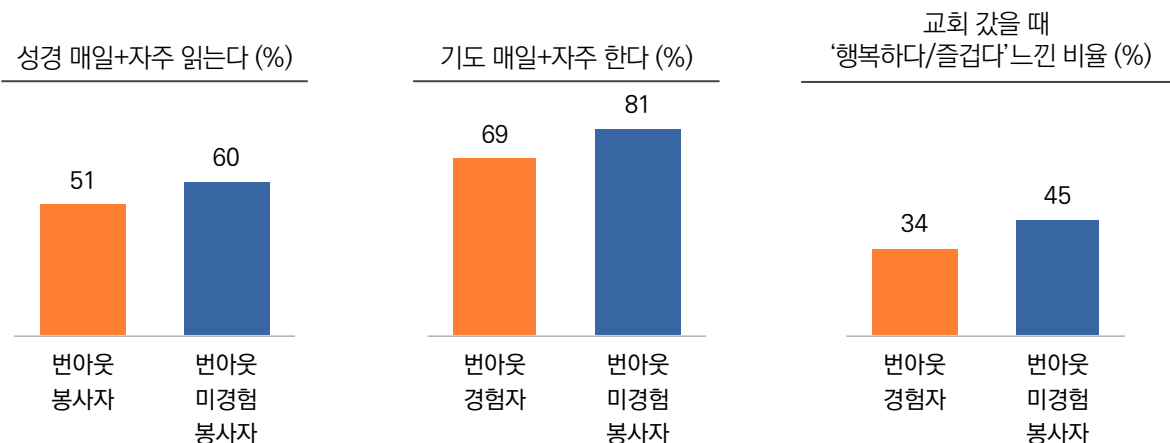
[그림] 교회 봉사로 인한 번아웃으로 직장/일상 지장 경험
(교회 봉사 번아웃 경험자)



◎ 번아웃 봉사자의 신앙 상태, 일반 봉사자에 비해 떨어져!

- ▶ 번아웃 봉사자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봉사자에 비해 신앙 상태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징후가 발견됐는데, 성경과 기도 생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교회 갔을 때 '행복하다/즐겁다'라고 느낀 비율이 일반 봉사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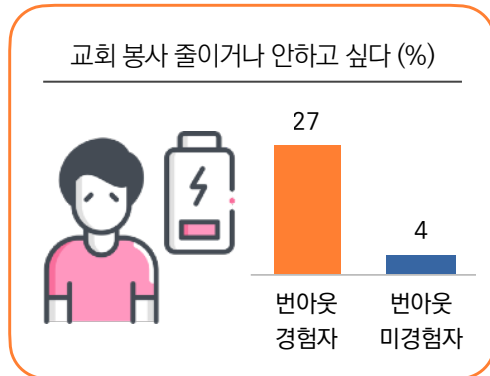
[그림] 교회 봉사로 인한 번아웃 경험자 vs 미경험자 신앙 상태 (교회 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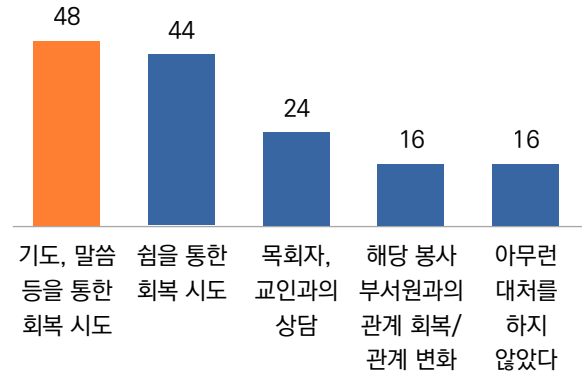
◎ 번아웃 봉사자 절반은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 시도!

- ▶ 번아웃 봉사자의 향후 교회 활동 계획은 '줄이거나 안 하고 싶다'가 27%로 미경험자보다 7배가량 높아 번아웃이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 ▶ 번아웃 대처 방법(중복 응답)으로는 '기도, 말씀 등을 통한 회복 시도'를 48%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처럼 개인적 경건/신앙 활동을 통해 번아웃을 극복하려는 봉사자가 절반가량이었고, '목회자, 교인과의 상담' 혹은 '해당 봉사부서원과의 관계 회복'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번아웃에 대처한 경우는 각각 5명 중 1명 안팎 정도 되었다.

[그림] 향후 교회 봉사 계획 (교회 봉사자)



[그림] 교회 봉사 번아웃 대처 (교회 봉사 번아웃 경험자,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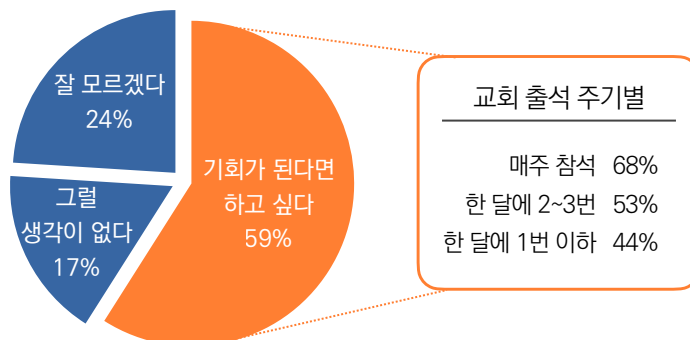
04

[교회 비봉사자 인식]

교회 비봉사자 10명 중 6명, '교회 봉사 하고 싶다'!

- ▶ 현재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향후 교회 봉사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가 59%로 '그럴 생각이 없다' 17% 대비 의향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 교회 출석 주기별로 보면 '매주 참석'(68%)하는 출석 교인의 경우 그 이하(한 달에 2~3번, 한 달에 1번 이하) 출석자 대비 향후 교회 봉사 의향률이 크게 높았다.
- ▶ 이번 조사 결과, 현재 교회 봉사하지 않는 성도의 향후 교회 봉사 의향률이 절반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는데, 특히 매주 주일예배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교회 봉사 권유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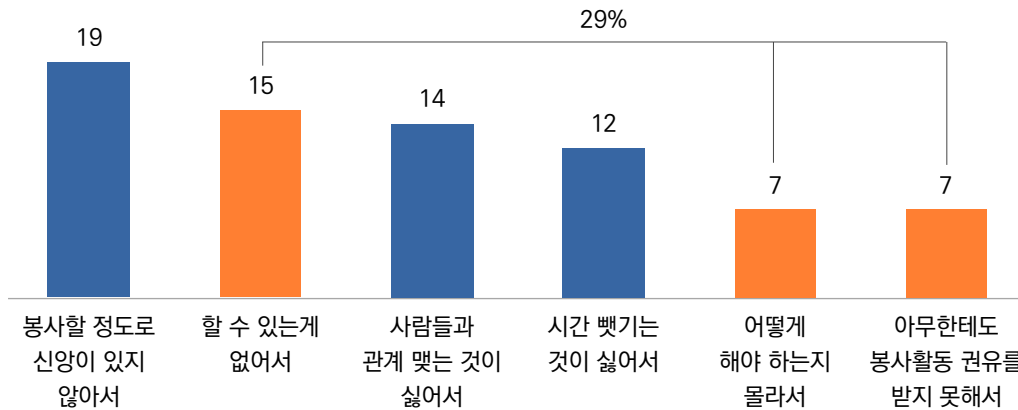
[그림] 향후 교회 봉사 의향 (현재 교회 비봉사자)



◎ 방법도 모르고 권유받지도 않아서 ‘교회 봉사 안 한다’ 10명 중 3명!

- ▶ 비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물은 결과, ‘봉사할 정도로 신앙이 있지 않아서’가 19%로 가장 많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15%,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싫어서’ 14% 등의 순이었다.
- ▶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무한테도 봉사활동 권유를 받지 못해서’ 응답자(29%)는 사실상 봉사 방법, 활동 경로를 알지 못해 시도조차 안 한 경우라 교회 차원의 적극적 홍보와 독려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교회 봉사하지 않는 이유 (현재 교회 비봉사자,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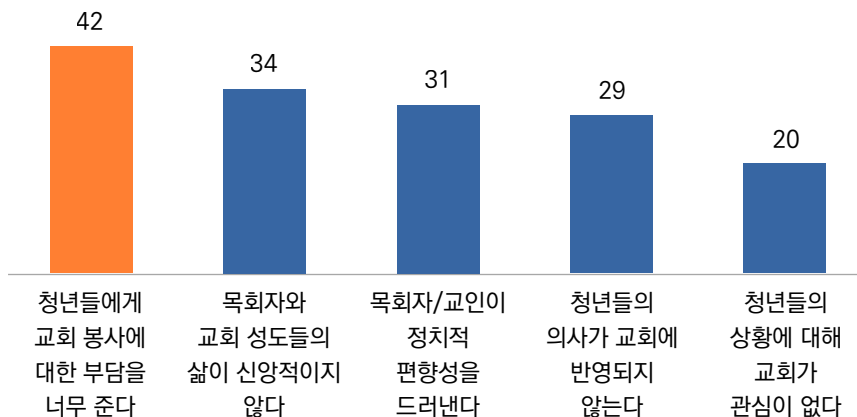


*기타 의견은 제시하지 않음

◎ 대학생이 생각하는 가장 큰 교회 개선 사항,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 너무 준다’!

- ▶ 작년 9월에 발표된 ‘2022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학원복음화협의회) 결과에서 교회 봉사 관련 자료가 있어 같이 다룬다. 교회 출석 대학생들에게 교회 개선 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위로 꼽은 것이 ‘청년들에게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을 너무 준다’였다.
- ▶ 젊은 세대의 경우 ‘교회 봉사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교회 출석 대학생이 생각하는 교회 개선 사항 (1+2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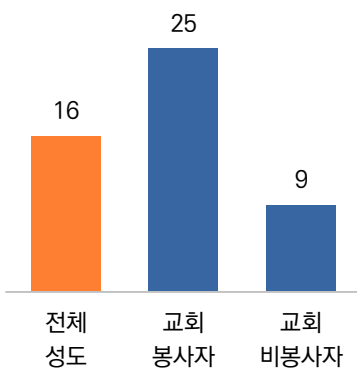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학원복음화협의회, 2022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2022.09.29. (개신교 대학생 345명, 온라인 조사, 2022.08.17.~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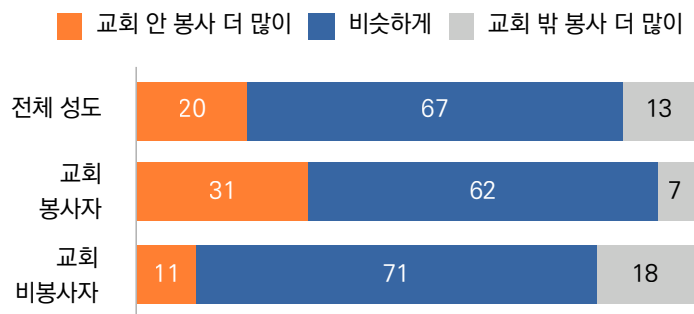
교회 봉사자, 사회봉사 활동도 비봉사자보다 3배 더 많이해!

- ▶ 교회 출석자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교회 밖 사회봉사 활동 여부를 물었다. ‘하고 있음’이 16%로 전체 교회 출석자 6명 중 1명 정도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 ▶ 교회 봉사자의 사회봉사 활동 비율은 25%로 비봉사자(9%) 대비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 ▶ 한편, 교인들은 교회 안팎 봉사 적정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둘 다 비슷하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교회 안 봉사’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회 밖 봉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교회 봉사자의 경우 ‘교회 안 봉사’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비율이 비봉사자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현재 교회 밖 사회봉사 활동 여부 (%)



[그림] 교회 안 봉사 vs 교회 밖 봉사 적정 비율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에게는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 보고서 전문을 추후에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현장예배 참석자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많다. 올 1월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된 결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 따르면 현장예배 참석률은 85.3%로¹⁾ 코로나 이전 대비 15%나 출석 교인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사람들은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것, 나의 관심이 아닌 것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교인의 감소, 개인주의적 성향 강화 때문에 교회 봉사자도 줄어서 교회에서는 성가대, 교사 등의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특히 젊은 봉사자를 충원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번 넘버즈 199호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교회 출석 교인 가운데 44%가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43%는 과거에 했는데 현재는 하지 않았으며, 13%는 봉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봉사자 가운데 앞으로 교회 봉사를 지금보다 '더 하고 싶다'가 23%인데 '줄이고 싶다'가 그보다 절반 가량 낮은 10%였다. 교회 봉사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현재 봉사자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열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나이가 올라갈수록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젊을수록 봉사를 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전체 성도 가운데 만19~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인데 동 연령대의 봉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성도 구성비보다 2%p 낮았는데 반해, 60세 이상은 전체 성도의 31%의 비중이지만 봉사자 비율은 34%로 동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3%p 더 높았다. 젊은 세대가 봉사를 기피하는 것은 교회의 활력과 미래 관점에서는 희망적인 결과는 아니다.

봉사가 일부에게 물리면서 봉사자의 '번아웃(지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최근 1년간 교회 봉사로 인한 '번아웃'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29%가 '번아웃 경험 있다'고 응답했으며, '번아웃' 경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는 '번아웃'으로 인해서 직장/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봉사자가 적어지는 상황에서 '번아웃'은 자주, 그리고 심하게 올 가능성이 높는데 그러면 현재 봉사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를 더 확보해서 봉사 부담을 나눠야 하는데, 긍정적인 것은 교회 봉사하지 않는 성도 10명 가운데 6명(59%)은 교회 봉사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점이다. 봉사 의향을 가진 이들을 봉사에 참여시키려면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비봉사자들이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봉사를 정도로 신앙이 있지 않아서'가 19%로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15%)가 두 번째 이유였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시사하는 점은 교회 봉사의 '동기와 자신감'을 부여하면 비봉사자를 봉사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봉사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7%), '아무한테도 봉사 활동 권유를 받지 못해서'(7%)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봉사하지 않는 비봉사자들은 교회와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와 안내가 있으면 봉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교회 비봉사자들이 봉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봉사 동기 및 자신감 부여'와 '적극적인 권유와 안내'가 필수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위 기관이면서 성도들을 세워주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교회 봉사를 회피하는 풍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봉사할 의향이 있는 비봉사자들을 주목하여 이들이 교회 봉사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봉사 참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1)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2023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서울:2023), 689쪽

1.[직장인 회식 문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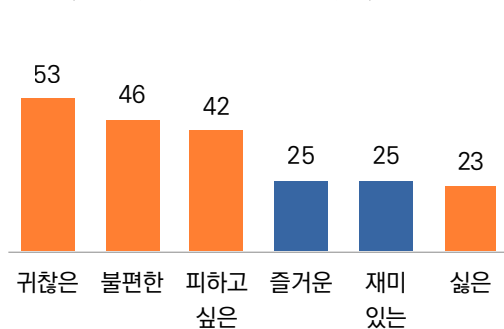
2.[가상자산 투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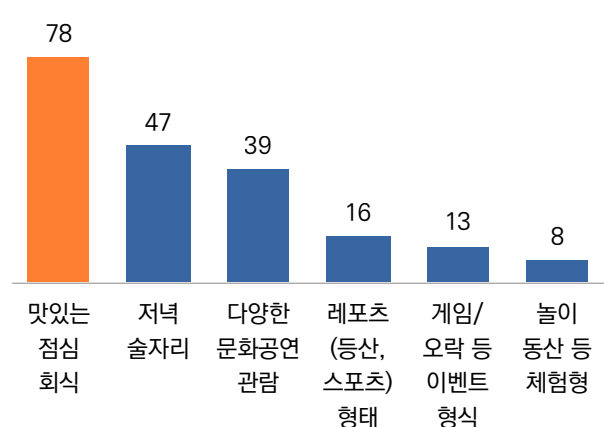
직장 내 회식 이미지, ‘귀찮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어!’

- ▶ 최근 발표된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 회식 문화 관련 인식 조사’ 결과(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직장 내 회식 이미지’의 경우, ‘귀찮은’, ‘불편한’, ‘피하고 싶은’ 등이 상위권에 포진돼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회식 유형은 무엇일까? ‘맛있는 점심 회식’(78%)이 ‘저녁 술자리’(47%),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39%) 등 회식 유형보다 훨씬 높아, 직장 회식도 ‘귀찮고’, ‘불편한’ 것 보다는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직장 내 회식 이미지
(직장인, 중복응답, 상위 6위, %)



[그림] 적절한 회식 유형 (직장인, 중복응답,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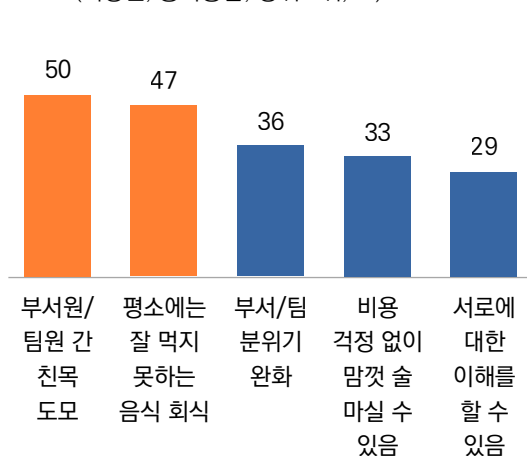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인 회식 문화 관련 인식 조사, 2023.06.14.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4.14.~0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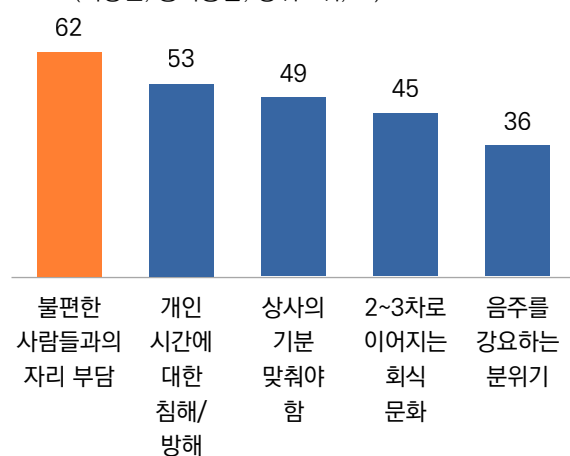
◎ 직장 회식의 단점, 불편한 사람들과 자리하는 것 부담스러워 62%

- ▶ 직장 내 회식 문화의 장점으로 ‘부서원/팀원 간 친목 도모’(50%)와 ‘평소에는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47%)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 ▶ 반면 회식 문화 단점은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부담감’에 대한 의견이 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시간에 대한 침해/방해’, ‘상사의 기분을 맞춰야 하는 상황 발생’ 등의 순이었다.

[그림] 직장 내 회식 문화 장점
(직장인, 중복응답, 상위 5위, %)



[그림] 직장 내 회식 문화 단점
(직장인,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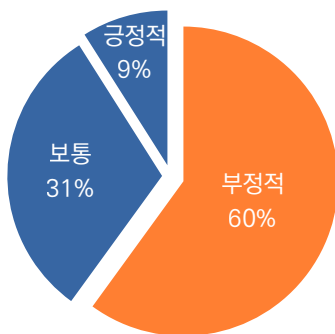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인 회식 문화 관련 인식 조사, 2023.06.14.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4.14.~0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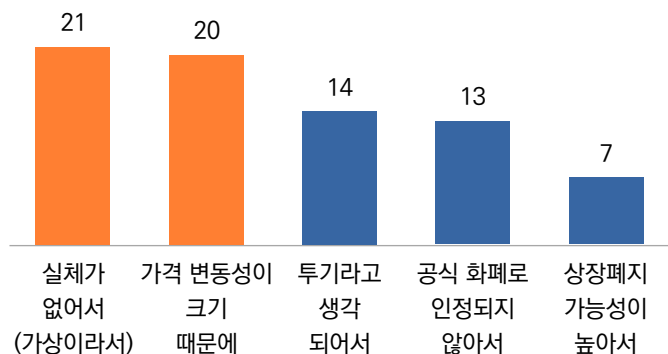
가상자산 투자, 긍정 인식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

- ▶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관한 여러 이슈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리포트(NICE디앤알)가 발간돼 소개한다.
- ▶ 금융 거래 소비자**들 중 '가상자산 투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9%에 불과했고, '부정적' 인식이 10명 중 6명(60%)으로 높은 편이었다.
- ▶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자산의 실체가 없어서'(21%)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20%)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고, '투기라는 인식', '비공식 화폐' 등의 요인이 뒤를 이었다.

[그림] 가상자산 투자 인식
(금융 거래 소비자)



[그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부정적 응답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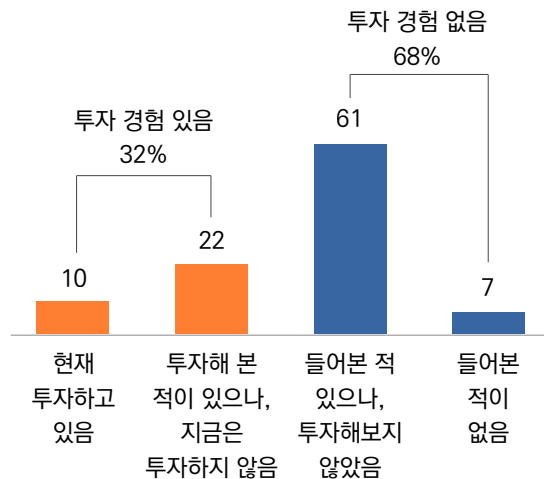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나이스디앤알, 금융 소비자 리포트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2023.06.25. (전국 만 20~69세 금융 거래 소비자, 이메일 조사, 15,059명, 2023.02.13. ~ 02.28)

**금융 거래 소비자 :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금융기관을 이용 중인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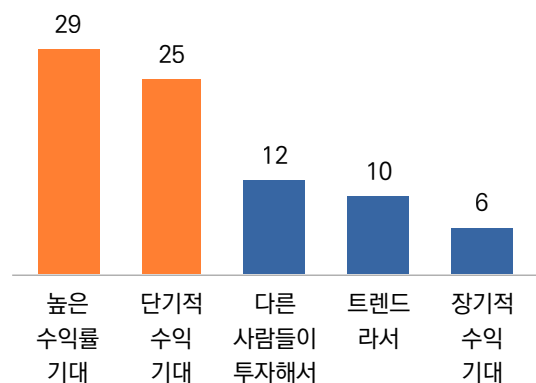
◎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 금융 거래 소비자의 10%!

- ▶ 가상자산에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조사 결과, '투자 경험이 있음' 비율은 32%로 3명 중 1명 꼴이었다. 반면,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유를 물었더니 '높은 수익률 기대'(29%)와 '단기적 수익 기대'(25%)를 꼽은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림] 가상자산 투자 경험 (금융 거래 소비자, %)



[그림] 가상자산 투자 이유
(가상자산 투자 경험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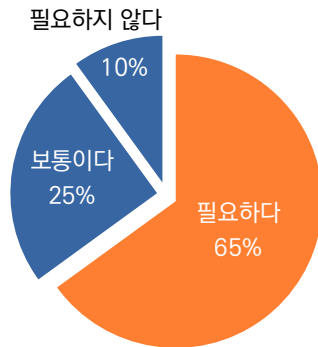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나이스디앤알, 금융 소비자 리포트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2023.06.25. (전국 만 20~69세 금융 거래 소비자, 이메일 조사, 15,059명, 2023.02.13. ~ 0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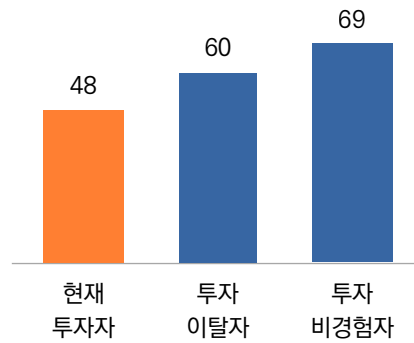
◎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기관 규제 필요하다 65%

- ▶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5%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 중인 사람보다는 비경험자(69%), 투자 이탈자(60%)가 규제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림]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 인식
(금융 거래 소비자)



[그림]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 인식
(금융 거래 소비자, %)



*자료 출처 : 나이스디앤알, 금융 소비자 리포트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2023.06.25. (전국 만 20~69세 금융 거래 소비자, 이메일 조사, 15,059명, 2023.02.13. ~ 02.28)

[넘버즈 200호 특집 구독자 참여 이벤트]

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연구소입니다.

주간 리포트 [넘버즈]가 2019년 6월 12일 1호를 창간한 이후, 오는 7월 18일 창간 200호를 맞이합니다. 이를 함께 축하하고자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글 또는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선정하여 넘버즈 200호 특집판에 수록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라겠습니다.

[참여방법]

1. 축하 메시지

아래에 있는 [축하 메시지 참여]를 클릭 후 축하 인사말, 찐팬 인증, 넘버즈 활용기, 넘버즈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2. 축하 영상

축하 인사말, 찐팬 인증, 넘버즈 활용기, 넘버즈에 바라는 점 등을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 하셔서 목회데이터연구소 카톡[축하 영상 참여] 또는 mhdata@mhdata.or.kr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세요.

(가로화면, 1분 이내, 발송 시 성함/연락처/소속 또는 직분 기재 요망)

[참여기한]

2023년 7월 14일(금) 18:00까지

[경품]

이벤트에 참여 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20명)을 드립니다.
또한 주간 리포트[넘버즈] 200호에 수록되거나 영상에 선정되신 분께는 2023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를 다룬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서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사반세기에 걸쳐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을 추적한 유일한 보고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1998-2023

축하 메시지 참여

축하 영상 참여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49호 \(2023년 7월 1주\)](#)

- 내년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향후 1년간 집값·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100호 \(2023년 7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필요성 등

◎ 사회 일반

[서울 고독사 위험군 5만가구...60대 가장 많고 77% 무직](#)

연합뉴스_2023.07.10.

[서울 평균 '월세' 106만원... '등골 휘는' 무주택자](#)

주간조선_2023.07.08.

[퇴직 후 매달 198만원 꽃히면 중산층... 은퇴 귀족층은?](#)

조선일보_2023.07.07.

[이젠 휴가 전 필수...18세 미만 66% 지문 사전등록](#)

연합뉴스_2023.07.10.

[물질적 과시보다 '력셔리한 경험'...연애 소비 트렌드가 변했다](#)

매일경제_2023.07.09.

["고국에서 취업하기 유리해요"...한국 유학생 1위 중국, 2위는?](#)

매일경제_2023.07.10.

[작년 연말 이어 올해 여름도... 일본 인기 해외여행지 1위는](#)

조선일보_2023.07.11.

[25~49세 남성 47%·여성 33%는 미혼...혼외자 출생 7천700명](#)

연합뉴스_2023.07.11.

◎ 경제 / 기업

["하루 방값이 55만원"...물가 겁난다, 휴포자 급증](#)

중앙일보_2023.07.10.

[기업 10곳 중 7곳 "고령자 고용한다면 '재고용' 방식 선호"](#)

조선일보_2023.07.10.

["괴롭힘방지법 효과있지만 직장인 33% 여전히 피해"](#)

연합뉴스_2023.07.09.

["공직보다 보수 높고 기업보다 안정"... 로스쿨 지원 5년새 65% 급증](#)

동아일보_2023.07.0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건강

[엄마 치매 땀 자녀도 알츠하이머병 위험 80% 높아진다](#)

경향신문_2023.07.10.

◎ 국제

[1020세대 “대학 갈 필요 없다” 분위기 확산](#)

매일경제_2023.07.10.

◎ 기독교 / 종교

[개신교인 일주일에 64분 성경 읽고 하루 24분간 기도한다](#)

더미션(국민일보)_2023.07.10.

[개신교 6.8% 유교보다 낮다니… 전도 어떻게 하나](#)

더미션(국민일보)_2023.07.07.

[한목협이 「한국 기독교분석 리포트」 화제](#)

기독교신문_2023.07.03.

◎ 기획기사 : [인구가 미래다!] 육아 쉬운 사회 되려면, (국민일보)

[① 육아휴직 쓰기 힘든 현실… 대안으로 꼽히는 유연근무제](#) _2023.05.24.

[② 출산 전부터 대기 줄… 국공립어린이집 ‘하늘의 별따기’](#) _2023.05.31.

[③ “둘째 낳으면 누가 키워줍니까?”… 육아에 지친 부모의 푸념](#) _2023.06.07.

[④ “호랑이띠 맘끼리 육아 정보도, 장난감도 나눠요”](#) _2023.06.14.

[⑤ 부부가 자녀 1명 두면… 프랑스선 소득세 30%→ 11%로 준다](#) _2023.06.22.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랑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덕신제일교회(담임목사 이신호), 현철, 정공주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철,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마성대